기독교교육논총 제64집 (2020. 12. 30): 51-79
DOI: 10.17968/jcek.2020..64.002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기독교교육*

김도일(장로회신학대학교/교수)
doilkim@puts.ac.kr

한글 초록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하는 기독교교육을 추구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이다. 코로나-19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착취한 인간의 탐욕으로 야기한 인재이다. 무차별적으로 번져가는 전 지구적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기에 우리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을 극복하여 어려움을 겪으며 애통해 하는 이웃과 함께 해야 한다. 더욱이 코로나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인류가 어떻게 서로를 도와 생존할 수 있을지 모색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와 인종과 경제적 능력 사이에 너무나도 큰 차별이 존재하고 있고 결국 자본주의의 극단적인 차별이 사회와 국가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다. 코로나-19가 침투했을 때 확진율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사망률은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사이에 큰 차이를 보였다. 평소에 덜 가짐으로 인하여 삶이 힘든 사람들이 바이러스의 공격을 막아내고 물리치는 일에 훨씬 더 취약하다는 점이 결과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오늘의 현실이다. 거시적으로는 기후변화 및 생태환경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미시적으로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에 존재하는 빈부, 성별, 인종, 장애 유무, 국적의 격차에 따라 엄청난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들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하여 백신 불평등에 대한 담론, 장애인의 필요에 대한 담론, 인종별 피해 정도의 상이함에 대한 담론, 양극화와 디스토피아에 대한 담

* 이 논문은 2020년도 장로회신학대학교의 학술연구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론, 교육적 불평등에 대한 담론 등을 코로나19 시대에 사회적 약자들의 당면한 현실로 다루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기독교교육을 위해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1.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의 건강한 시민으로서 살게 돕기 위해 가정과 교회가 함께 하는 기독교교육 교재 '해피투게더'를 대안으로 제안하였고, 2. 아스머와 슈바이쳐의 연구 분석을 통해 인류의 상호의존성과 상호책임성을 강화하는 공적 신앙의 계발에 대해 다루었으며, 3. 학습자의 분별력 증진을 위해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폴 길스터의 담론을 분석하였고, 4. 피조물의 제자리를 찾기 위한 기독교교육 생태계를 복원을 위한 호모 사피엔스의 역할을 구약학자 강사문의 석의(釋義)적 시각으로 다루었으며, 5. 최종적으로 약한 자의 친구로 살게 하는 우정신앙을 품어 온전성을 추구하는 기독교교육적 정신 제안하기 위해 파커 파머의 온전성에 대한 글과 크리스틴 폴의 우정신학을 분석하여 제안하였다. 유일무이한 삶의 잣대인 성경 말씀 위에 터한 기독교교육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염두에 두어야 할 소명은 굶주리고, 헐벗으며, 갈 곳이 없고, 병에 걸려도 치료제 주사를 맞지 못하여 결국 죽어갈 수밖에 없게 될 나그네와 같은 이웃을 내 형제로 친구로 알고 섬기며 돌보는 우정 신학을 굳건히 세워 사고와 실천이 어우러지는 삶을 추구해 나아가야 한다. 그럼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애통해 하며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자 하는 기독교교육 정신과 방안을 제안하였다.

《 **주제어** 》

코로나19 팬데믹, 사회적 약자, 불평등, 상호의존·책임적, 연대·우정 신학

I. 들어가는 말

코로나-19 팬데믹 시대가 이미 우리 곁에 가까이 그리고 어쩌면 장기간 생존, 활동할 조짐을 보인다. 바이러스는 인간이나 짐승을 구별하지 않는다.

무차별적인 바이러스의 공격에 선진국 후진국 차별 없이,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차별 없이, 부자, 가난한 자 차별 없이, 남자 여자 차별 없이, 심지어는 나이마저 차별 없이, 북미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오대양 육대륙 차별 없이 무너뜨리고 있다. 전 지구적인 팬데믹 사태는 근본적으로 생태 문제가 결코 사치적 문제나 부차적인 문제가 아닌 인류 생존의 문제라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계치를 넘어 종말로 치닫는 지구의 상황을 인류가 체감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침투함으로써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월레스 웰스(Wallace-Wells, 2020, 169)에 의하면 지구의 기온이 2°C 상승하면 빙산이 붕괴되기 시작하고, 4억 명 이상이 물 부족을 겪게 되고 적도 지역의 주요 도시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하고 북위도 지역 역시 여름마다 폭염으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게 된다. 전염병학자들이 먼 옛날에 창궐했던 질병들이 재발생하는 것보다 더 염려되는 상황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현존하는 질병이 장소를 옮기고 관계망을 바꾸며 심지어 진화를 거듭한다는 것이다. 기온 상승으로 인한 북극 동토층의 해빙은 이전의 박테리아를 재소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구화로 인한 바이러스, 박테리아의 확산 속도가 세계화되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미생물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이를 일으키고 있다. 인간의 몸속에 있는 박테리아의 99%가 아직도 규명되지 못한 상황과 다양한 기후변화 속에서 어떤 작용을 할지는 미지의 영역인 셈이다(Wallace-Wells, 2020, 167-175). 이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지구촌은 온난화로 말미암아 곳곳에 홍수가 범람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불-회오리(fire-tornado)가 인간의 거주지를 강타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섭씨 35도를 넘나드는 더위 속에서도 지구촌 사람들의 얼굴에서 마스크를 떼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도 무지, 만용 등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 전파라는 피해를 입히는 상황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지구는 점점 더 거주 불능 행성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본 연구의 초점인 코로나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인

류가 어떻게 서로를 도와 생존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대응함에 있어서는 국가와 인종과 경제적 능력 사이에 너무나도 큰 차별이 상존하고 있고 결국 자본주의의 극단적인 격차와 차별이 사회와 국가 전반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코로나19가 침투했을 때 확진율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사망률에 있어서는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사이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평소 가난으로 인하여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이러스의 공격을 막아내고 물리치는 일에 훨씬 더 취약하다는 점이 결과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거시적으로는 기후변화 및 생태환경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올바른 것 같다. 왜냐하면 "기후변화의 공격은 원자탄보다 더 전면적이고, 더 구석구석으로 퍼지기"(Wallace-Wells, 2020, 340) 때문이다. 미시적으로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에 존재하는 빈부(그것이 성별, 인종, 장애 유무, 국적)의 격차에 따라 엄청난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올바른 자세로 여겨진다. 이것이 본 연구의 초점이기도 하다. 생태학자 재레드 다이아몬드(Jared Diamond, 2014, 307)의 증언처럼 "유럽의 총칼에 의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은 아메리카 원주민보다 유럽의 병원균에 의해 목숨을 잃은 원주민 수가 훨씬 더 많았다"(뉴욕타임스에 의하면 미국 내 코로나-19로 인한 25만명의 사망자 수는 베트남전과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수의 거의 2.5배에 달하는 것. 송경재, 2020년 9월 23일)는 사실은 바이러스의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전염병의 대처에 있어 경제/정치적 힘의 차이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본 논문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애통하며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길을 모색하는 연구이다. 먼저 사회적 약자들이 당면한 오늘의 현실 속에서 코로나19 재난의 도래를 목격하고 대처를 주문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살펴보고 현 상황을 분석할 것이다. 그 이후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하는 기독교교육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사회적 약자들이 당면한 오늘의 현실

사회적 약자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가? 본 연구에서 사회적 약자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삶의 무게가 가중된 사람들을 말하며, 주로 빈곤층, 노숙자, 노약자, 장애인, 저소득 저학력자들, 아동 및 청년과 여성들, 그리고 모국을 떠나 한국에 와서 사는 외국인 등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겪는 어려움에 주목하는 가운데 사회적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이들을 의미한다. 더욱이 이러한 어려움에 비교적 덜 노출된 기독 신앙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형편을 살피면서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하는 기독교교육적 시도는 매우 절실하며 시급하다고 볼 수 있겠다.

1. 사회적 감수성 회복과 백신 불평등 사회에 대한 담론

사회 비판적 소설집 『사회적 약자』는 비록 현재와는 다른 19세기 중반에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배경으로 쓰인 작품이지만, 풍요로운 현대인들이 잊기 쉬운 소외된 사회적 약자 즉 '작은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고조시킨다. '힘세고' '많이 가진 자'들의 횡포에 희생되는 우리 곁의 '작은 사람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소중한 부르심 중의 하나로 여기는 모든 신앙인의 책무이다. 이 사회적 약자들은 언제 어디에든 존재하고 있고, 이들에게는 주위의 관심과 배려, 그리고 사회적 공공성 제고를 통한 법치문화의 확립이 필요하다 고일은 주장하였다(고일, 2011, 314-319). 고일은 노어노문학 전공 학자로서 카람진, 푸슈킨, 고골, 도스토옙스키, 채호프의 사회고발적 단편소설(각각 가엾은 리자, 역참지기, 외투, 가난한 사람들, 관리의 죽음)을 '사회적 약자'라는 주제로 편역하였고 코로나-19 시대에 경종을 울리는 글들이며,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용한 저서들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학작품들은 사회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사회적 감수성(social sensitivity)을 일깨우고 회복하는 데에

필수적이며, 대개 실제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쓰인 것이기에 오늘의 상황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며 시의적절하기에 여기에서 다루었다.

세계는 현재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전쟁 중이다. 어느 나라이건 어느 회사이건 간에 백신과 치료제를 발명한 이는 분명 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사가 면역률 95퍼센트에 육박하는 백신개발을 성공했다는 희소식이 들려온다. 이 두 회사가 큰돈을 벌게 될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돈을 누가 더 많이 버느냐 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미 선진국들이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도 전에 모두 선점했다. 미국은 이미 80억 달러(약 9조5천억 원)를 쏟아 부었고, 유럽연합, 영국, 일본 등도 백신 확보 전쟁에 뛰어들었으며 이들의 선 구매량은 13억 회 분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선 구매는 2022년 1분기까지 생산될 백신의 예상량이 10억 회분밖에 되지 않을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나올 것 까지를 이미 선점해버린 것이다. 한마디로 입도선매(立稻先賣)해 버린 것이다. 전쟁이 따로 없으며 한심한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연합뉴스, 2020년 8월 4일). 한 마디로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의 여러 나라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출시되어도 당분간은 구경하기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진화생물학자 다이아몬드가 현대 세계의 불평등에 대한 의문을 갖고 던진 '왜 우리 흑인들은 백인들처럼 기본권을 누리며 살지 못합니까?'라는 질문은 우리로 많은 것을 고민하게 한다(Diamond, 16 이하). 가진 나라는 살고, 덜 가졌거나 못 가진 나라는 백신 소식을 들으면서도 죽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코로나19로 드러난 악함은 백신 및 치료제 불평등으로 나타나게 될 공산이 크다. 설익은 인류, 이기적인 인간, 자국중심주의라는 덫에 빠진 여러 나라, 공공선의 가치를 잊은 호모 사피엔스의 모습을 개선하지 않으면 인류에게 내일은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2. 사회적 약자의 현실: 개인적 경험

혼자서는 인간의 기본적이며 일상적인 생활조차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한 재난이요 재앙이다. 대구에서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에서 거의 전원이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완전한 방치의 현존, 이것이 장애를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는 공공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비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는 이유이다. 연구자의 부모도 코로나-19의 침투에 무방비로 노출되었고, 부친은 2020년 4월 11일에, 모친은 사흘 후인 14일에 하늘나라로 가셨다. 당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헌팅턴 요양병원의 직원 1/3 이상이 격리되었거나 근무처에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은 환자와 직원들의 모습을 한국에서 영상통화로 확인한 바 있다. 훗날 해당 요양병원의 리포트를 확인한 결과 확진자가 수십 명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필자의 부모님은 기저질환이 전혀 없던 모친의 발열로 시작되어 부친에게까지 전염되었으며 의료진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는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별세하게 되었다. 부모님은 휠체어에 의지하여 생활하였으며 의료진의 도움이 없이는 그 장소를 벗어날 수도 없던 상황이었다. 몸이 불편한 노인들과 장애를 가진 이들은 사회적 약자이기에 외부 도움의 손길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절대 필요를 가진 이들이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이러한 평범한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주었다. 장애인과 노약자도 우리의 이웃이며, 우리의 부모이며, 우리의 친구라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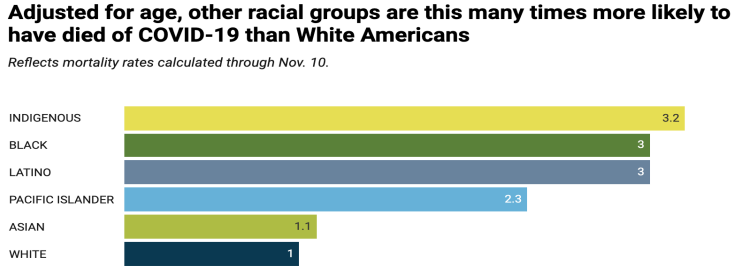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가 이 시점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의학이나 경제의 전문 지식이 없는 채로 너무 “성급히 해결책으로 비약하지 않고 애통하고 자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Wright, 2020, 9).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책에서 톰 라이트는 로마서 8:28을 재번역하면서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히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강조하며 인류가 서로 위로하고 애통해하며 극단적인 빈부의 격차를 어떻게 해서든지 줄여가며 상호 공존, 공생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견해는 코로나 이후에 인류에게 찾아올 재앙은 팬데믹 때문에 질병으로 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파탄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는 사회적 약자와 약소국을 돕는 것이 현재 인류가 붙들어야 할 소명이라는 것이다(Wright, 2020, 93).

3. 미국내 인종별 사망자 비교 추이가 보여주는 코로나 19 참혹상의 사회 현실

세계 제1위의 선진국 미국의 상황은 빈부의 격차로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2020년 11월 12일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24만 명이며, 〈표 1〉에 나오는 것처럼, 아세안계(8,687), 흑인계(46,211), 원주민계(2,251), 라틴계(46,912), 태평양섬계(334) 그리고 백인계(123,429)의 사망자 통계를 볼 수 있다.

<표 1> 백인의 사망률과 비교한 유색인종들의 사망률 비교 막대표



출처 : https://www.apmresearchlab.org/covid/deaths-by-race

이 데이터에서 주목할 점은 미국 내의 사망자 중 상대적으로 경제사회적 혜택을 덜 누리는 것으로 알려진 흑인, 아메리칸인디언, 태평양 섬 부족, 라티노(남미 출신 부모의 후손)의 사망률과 백인의 사망률 비교할 때 현저하게 높다는 점이다. 위의 11월 10일 데이터에 의하면 10만 명을 기준으로

할 때, 114.3명의 흑인이 사망했고, 108.3명의 아메리칸인디언이 사망했으며, 75.5명의 태평양 섬 부족이 사망했고, 78.5명의 라티노들이 사망하였지만, 이에 비하여 백인들은 61.7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외적으로 33.1명의 아시안이 사망하였다. 아시안(47.6)이 백인들보다 사망률이 적은 이유는 아마도 아시아에 사는 본토 친척들의 참혹함에 대한 선행학습으로 인한 것일 수 있으며, 마스크가 전염을 방지한다는 과학적 신념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한다. 본 데이터는 미국 공공 미디어 연구원(American Public Media Research Lab)에서 2020년 4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축적한 데이터로서, 백인사망율 대 타인종의 사망률을 비교한 것이다. 이 데이터에 의하면 흑인들은 백인들에 비하여 3.2배, 아메리칸인디언은 3배, 태평양 섬 부족은 2.3배, 라티노는 3배, 그리고 아시안은 1.1배가 많은 사망률을 보인다는 점이다. 아시안의 경우, 백인들보다 "십만 명 당 사망자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세한 통계분석을 통한 사망률로 살펴본다면 오히려 백인들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절대적인 사망자 수는 백인>흑인>라티노>태평양섬계>아시안 순으로 나타난다. 이는 상대적으로 백인이 흑인보다 흑인이 아시안의 수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흑인, 라티노, 아시안이 백인들보다 사회경제적인 안전망이라는 측면에서 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제 10만 명 당 희생자의 수는 흑인>라티노>태평양섬계>아시안>백인인 것이다.

이 세상엔 인종차별이 존재한다. 특히 미국엔 백인들과 유색인종 간의 갈등이 매우 심하다. 생활 속에 아직도 많은 인종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이 최근 더 자주 드러나고 있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too!) 운동이 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운동의 이유는 무지하고 인종차별이 습관화된 일단의 백인 경찰에 의해 무릎으로 목이 졸려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 사건이 미국 전역을 뒤흔들어 놓은 것을 보면 인종간 갈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데 인종차별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백인우월주의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것처럼, 한국인 우월주의도 그러하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월급을 갈취하고 노동허가권을 빌미로 하여 임금을 차별하는 행위 등이 그 예일 것이다. 여기서는 미국 내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이들을 인종별로 비교할 것이다. 그러면 왜 대한민국에서 미국의 인종별 사망률 비교 자료를 살펴보는가? 그들의 참담한 모습이 상대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잘 하고있는 우리에게 유의미할까? 물론 전반적으로 세계 최강, 최고 선진국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미국이지만 국민건강보험 면에서는 대한민국보다 엉성하기 그지없고, 보편적인 국민건강을 돕는 문제마저 자본주의 논리로 일관해왔던 댓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미국의 상황이 우리나라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세월호, 메르스, 사스 등의 전 국민적 위기상황을 겪으며 선행학습을 선제적으로 치루며 철저하게 준비한 대한민국이 재난상황에서 전 지구적 인정과 신뢰를 받는 선진국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맞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장애인, 노인, 외국인, 탈북민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사는 공공의 법과 보편사회적 시스템이 아직 미비한 것 역시 사실이다. 미국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공공의료시스템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더불어 전반적인 의료보험체계에 대한 개혁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제는 전 세계를 이끌 최고 선진국의 자리를 내어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작지만 알차고 철저하게 준비가 된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가 모범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전망이다. 위의 데이터에 의하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대처에 있어서도 사회경제적인 뒷받침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국가적인 재앙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사실이 모든 인종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하여 주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배려하며 그들과 함께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더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며, 모든 나라에 필수적인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4. 양극화와 디스토피아 현상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에 서로 모여 살고, 먹을 것을 나누어 먹고, 필요한 물품을 교환하면서 사랑도 관심도 나누어 가질 때 기쁨을 느끼게 되고 존재 이유를 찾게 된다. 유토피아(utopia)의 전형적인 모습이 천국이며, 디스토피아(dystopia)의 전형적인 모습은 재난이 일상화된 상황일 것이다. 비록 부족함이 있어도 유토피아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동안 인류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정상 사회(normal society)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제는 그동안 당연하게 추구하였던 노멀사회의 모습, 즉 서로를 의지하고 존중하며 연대를 표시하기 위하여 손을 잡고 악수하며 서로의 얼굴 앞에서 허그를 하던 삶의 양태를 강제로 지양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른바 언컨택트 사회(uncontact society)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뉴노멀(new normal) 사회'라는 갈림길에 서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뉴노멀, 언택트 사회는 우리 사회를 점점 더 양극화시키고 있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오랜 세월 '봉쇄'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선택했다. 그 와중에도 대한민국은 봉쇄를 선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입국하는 자국인은 물론 외국인까지도 받아들이는 가운데 철저한 검사와 치료 그리고 방역을 통하여 전 세계에 모범국가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른바 K-방역이 빛을 발휘한 것이다. 그 결과 32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 저하를 기록하게 되었고 빌 게이츠(Bill Gates) 같은 이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그 와중에 소위 종교지도자라는 이가 이른바 광복절 집회를 강행하면서, K-방역의 성공 신화가 다소 퇴색하는 듯한 경험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과학적이고 적극적인 방역 체계는 전 세계에 모범적인 모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화에서 부자들은 자신들만의 휴양지를 조성해놓고 바리게이트를 설치하여 일반 서민들의 접근을 금지하였다. 물론 이 휴양지

는 엄청난 돈을 지불하여야만 입장할 수 있다.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놓고 자신들만 무바이러스 지역(청정지역)을 누리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전 싱가포르는 초기 전파를 철통같이 방어하여 거의 세계적인 방역 모범국이 되는 듯했다. 하지만 당시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에 코로나-19가 갑자기 퍼지면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전염병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과의 간격을 넓혀 놓다(김용섭, 2020, 294). 김용섭에 의하면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한 이후, 중국에서 탈출하려는 부자들의 요구로 고급 전용기 수요가 급증했다. 공항에서조차 접촉하기 꺼려하는 부자들은 세계 각국의 전용 비행기 회사의 비즈니스 제트 서비스와 연결하기 위해 부산하게 움직였고 실제로 이런 서비스 사업자들은 거액을 벌어들였다고 한다(김용섭, 2020, 295). 사회 양극화, 경제 양극화는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격차를 극대화시킨다. 콘택트 사회에 태어나 서로 사랑하도록 부르심 받은 우리들은 이제 언택트 사회를 강요받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것이 디스토피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있는 사람들이 바이러스와 접촉하지 않기 위하여 없는 사람들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더 많은 택배 물품이 범람하게 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 시대의 택배기사들은 1분에 1개꼴로 배송해야 하고 하루에 350개 이상의 택배 물품을 배달해야 한다. 그들은 35도에 가까운 폭염에도 마스크를 쓰고 뛰어다녀야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다. 2020년 11월 현재 올해에만 이미 7명이 과로사할 정도로 살인적인 스케줄과 노동에 시달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그들의 삶을 개선할 법과 제도를 만드는 사람을 선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투표를 행사해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blog.naver.com/oddnc/22200004438). 억눌린 노동자들을 위해 생을 바쳤던 전태일50주기를 맞는 2020년 말에 이르러서야 택배 및 공장 노동자들을 위한 보호법제정에 나서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보면 미국이나 유럽의 상황만을 탓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라도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신앙인들이 나서야 할 것이다.

5. 코로나-19, 사회적 균열: 교육적 불평등을 비춰주는 엑스레이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쿠테흐스(Antonio Guterres)는 "코로나19는 자유시장이 모두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할 것이라는 거짓말, 우리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없어진 세상에 살고 있다는 망상, 우리는 모두 한 배를 타고 있다는 신화 등 도처에 널린 거짓과 오류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고발하면서 이는 각국의 자국 보호주의, 극심한 이기주의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하였다(강건택, 연합신문, 2020년 0719). 쿠테흐스는 코로나가 마치 엑스레이처럼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균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면서 세계의 부를 장악하고 있는 26개국은 약소국의 빚을 탕감하는 일에서부터 코로나19 퇴치에 인류애를 발휘해야 함을 암시하였다. 사회적 불평등의 극치는 교육의 불평등에 있다. 언택트 온라인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인터넷망이 갖춰지고 각 가정마다 컴퓨터를 소유해야 하지만 당장 먹고살 것도 없는 후진국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다. 유엔에 의하면 2020년 8월 4일 현재 160개국 이상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가 문을 닫아 10억 명 이상의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중·저소득 국가들이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들에게 심각한 교육 불평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이지예, 2020). 이러한 현상에 대한 분석과 학문적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상황이 악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으며 선진국에서 유엔과 같은 범국가적인 기구를 통하여 어려움을 겪는 국가의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전에 어둠 속에 숨어 있던 사회적 균열-교육적 불평등과 같은 문제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치 엑스레이 광선에 몸의 속 문제가 드러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균열과 불평등이 우리 사회 속에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는 가운데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III.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기독교교육적 제안

1. 예수님의 제자로서 동시에 세상의 시민으로서의 나눔, 베풂, 연대를 촉진하는 기독교교육 교재개발

기독교교육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로 하여금 성숙하고 효율적인 헌신을 통하여 동료 인간이 고통당할 때 돕고 연대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데에 있다(Coe, 2006, 68 이하). 만일 인류가 코로나19를 범지구적으로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에 실패하게 되면 전 지구적인 온라인 노마드와 물리적인 유목민(집 잃은 떠돌이)을 많이 양산하게 될 공산이 크다. 지금도 아프리카와 적지 않은 지구촌의 사람들은 아직도 3차 산업혁명 시대, 즉 정보화시대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요즘을 초연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시대를 구가하게 될 5G 시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지구촌 중 상위 32개 국가, 즉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속한 선진국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다. 인간다운 삶을 사는 자연인 노마드가 아닌 온라인 교육과는 동떨어진 문명의 이기를 전혀 향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 노마드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다룬 제이슨 셍커(Jason Shenker)는 현재진행형인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닥쳐오고 있는 변화를 예측하면서 의료서비스업, 유통망 관련업 등 필수노동이 가능한 원격근무가 가능한 직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통근 수요와 기업의 사무실 수요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의료 관련 전문인과 소프트웨어 개발자, 로봇개발자 및 관리자, 태양광 및 풍력발전 설치기사 및 관리자, 통계학자와 같은 하이테크를 사용할 줄 아는 고도의 전문가들이 많은 수입을 차지할 것이라고 보았다(Shenker, 2020, 24-28).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는 과정 가운데 인공지능이나 로봇, 자동화 관련 사업에 거대한 수요가 존재하며 물류 유통 및 보관업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대부분

의 지식 노동자는 재택근무를 통하여 원격근무를 하게 되어 이전보다 사무실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Shenker, 2020, 30-32). 이런 상황만 보아도 컴퓨터, 소프트웨어, 의료 관련 업무 등과 같은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이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생활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등과 상관이 없는 삶을 영위하는 사회적 약자 계층과 그들의 자녀들은 당연히 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된다. 본인이 일부러 노마드가 되기로 작정하지 않은 이상, 가난을 대물림하게 되는 자신의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처절한 노마드가 더 많이 양산되지 않도록 교회는 나눔, 베풂, 연대를 통한 상생과 번성의 길을 택해야 할 것이다.

이 세 가지 덕목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게 돕기 위하여 전술한 기독교교육의 목적을 늘 상기하고 가정예배와 성경공부를 위한 구체적인 교재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독교교육연구원의 해피투게더가 지향하는 가정과 교회가 연대하여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자직과 시민직을 위한 교재로써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본다(2009, https://www.ceri.co.kr/). 해피투게더는 누가복음 2:52에 토대하고 교회력과 연결하여 절기에 맞춘 내용으로 제자직 관련 주제를 다루었고, 윤리적 시대적, 발달적 차원을 고려한 덕목 중심의 시민직 관련 주제도 다루는 통전적 기독교교육 교재로 평가된다. 한 달에 한 주제에 전성도가 동일한 주제로 설교를 듣고 성경공부를 할 수 있는 원-포인트 레슨(One Point Lesson)이다. 기독교인의 성품교육을 시도한 아동 및 청소년 교재로서 가정의 부모와 교회의 구성원이 힘을 모아 다음세대를 양육하기 위해 36개월, 36주제로 만들어진 교재이며 언택트 시대에 그 가치가 더욱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가정과 교회가 연대하여 자녀, 부모, 조부모 모두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공통의 가치를 이 교재가 도와주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이전세대-현세대-다음세대가 헌신된 예수의 제자로서 건강한 세상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 교재를 구상한 필자의 확신이다. 이와 같이 기독교인의 제자직과 시민직을 균형 있게 개발하는 전 세대 교재가 더 많이 개발되는 것이 절실하다.

2. 인류의 상호의존성과 상호책임성을 강화하는 공적 신앙의 계발

아스머와 슈바이쳐(Richard R. Osmer & Friedrich L. Schweitzer)는 기독교교육에서 공교육(paideia of the public)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구적 성찰능력(global reflexivity)을 계발하여야 한다고 기술하였다. 그들은 사람을 살리는 책임적 관점에서 지구화를 논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공공의 사명완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주장한 것이다(Osmer & Schweitzer, 2003, 149). 이는 오늘날과 같은 전 지구적 위기상황에서 적실성을 가진 견해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우리 정부도 이 논의에 참여하고 있음을 다음의 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 팬데믹인 코로나19가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작금의 시점에 청와대는 프랑스의 경제철학자 기 소르망(Guy Sorman) 교수를 초청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와 사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제하의 영상 인터뷰(최정화 통역)를 가졌다. 소르망은 코로나19 사태는 인류가 상호의존성을 갖고 있음을 다시 일깨워주었다고 주장하였다. 한국, 타이완, 독일과 같은 나라가 이 사태에 대하여 비교적 잘 대처하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정부의 정당성(legitimacy of the government)이다. 이는 정당한 방법으로 지도자를 선출하였기에 국민이 지도자를 신뢰하는 것에 기초하여 나라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굳건한 연대의식(sense of solidarity)이다. 페리 코레시스(περιχώρησις)로 표현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상호내주, 상호침투, 상호연대의 본을 보여 주셨듯이, 모든 사람은 신앙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단결하고 연대해야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다는 전 국가적 사명감이 싹텄다는 것

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한국과 같은 나라는 국가적 사명감은 강했으나 개인주의에 대한 존중은 적었다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었으나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2000년대 초반부에는 국가적 연대가 개인주의를 잠식했다는 분위기가 강하였으나 이제는 한국의 젊은이들도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잡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렇기에 이제 한국은 검사, 치료시설 설치, 환자 격리 및 치료의 전 분야에서 세계의 모범국가로 우뚝 서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소르망의 견해에 따르면 한국은 1960년 이후에 국가적 전략을 세우고 모든 국민이 전략적 사고를 하는 데 익숙해져 있기에 짧은 시간에 변영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보았다. 이제 한국은 경제 소득, 교육 수준, 양성 평등 등과 같은 주제에 있어 선진국적인 양태를 갖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면서 보건 시스템도 선진국이 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한국은 이에 적합한 국가가 되어 가고 있다고도 하였다. 이제 코로나19 시대에는 경제 활성화보다는 고용 활성화를 수행하여 나라의 기반을 바로 잡고 이 재난의 상태를 극복해야 할 것이라 하였다(Sorman, 2020). 이 시대는 바야흐로 상호의존성과 상호책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본적인 시민정신이 절실한 시대가 되었음을 모든 국민에게 교육하였고, 국민의 기저에 자리 잡았으며, 그것이 라이프스타일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중이 말한 것처럼 기독교교육은 아가페적 사랑으로 가진 자와 덜 가진 자가 사랑하고 연대하여 더욱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김성중, 2020). 기독교교육에서도 이러한 상호의존성과 책임성에 관한 교육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모든 피조물의 생태계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 모두는 전체에 속한 일부에 불과하고 이웃과 함께 존재한다는 의식을 갖고 생태계를 거대한 톱니바퀴로 볼 때 우리 모두는 그 톱니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므로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서로를 위해 존재한다는 책임성을 일깨우는 교육을 하는 것이 기독교교육의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다(김도일,

2020, 10-12). 무엇보다 기독교가 사적인 종교로 교회당 울타리 안으로 제한하지 않고, 울타리 밖 즉, 세상에서도 신뢰받고 존경받는 종교로써 돌봄과 베풂과 연대의 사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교회는 광장에서도 소통하며 삶을 나누는 공적신앙을 진작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을 사랑하시어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 드리기 위해 복음의 공공성을 확립하고 교회가 지향해야 할 좌표를 설정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가 지금이다(Volf, 2014).

3. 학습자의 분별력 증진을 위한 통전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독교교육은 통전적인 리터러시 교육(literacy education)에 늘 관심을 갖는다. 이는 선과 악, 신앙과 불신앙을 적절하게 분별(discernment)하는 열쇠와 같은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기에 기독교교육의 중요한 채널이 된다.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를 들어 보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프랑스 정부가 시민들을 위해 발표한 꽁피느멍(Confinement: 통제 행정명령) 대책이 눈길을 끈다. 마크롱(Emmanuel Jean-Michel Frédéric Macron) 대통령은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의 약속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첫째, 가정 폭력이 벌어지고 있다면, 도망쳐서 정부의 도움을 청하라. 둘째, 코로나 사태 동안 노숙자들을 정부가 보호하겠다. 셋째, 의료 분야와 마트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겠다. 팬데믹 재난 상황에서 집에 갇혀 외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어린이와 부녀자 및 노약자들이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며, 노상에 방치되어 의료 및 일용할 양식을 취하기 어려운 길 위의 이웃에 대한 대책이며, 환자들을 돌보다가 막상 자신의 건강을 해치기 쉬운 의료진과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생필품 구입을 위하여 환자/비환자 모두가 방문할 수밖에 없는 마트에서 일하는, 생활 최전선의 노동자들을 위한 사려 깊은 대책이라고 본다. 물론 프랑스

정부의 대책이 실생활에서 정책 달성으로 드러난 자료는 아직 없기 때문에 그 결과를 확인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정보의 진위를 가려내는 분별교육)은 오늘날과 같이 정보의 양이 매일 봇물 터지듯 넘쳐나는 정보 쓰나미 시대(현대인은 매일 300만 쪽 이상의 정보에 노출되고 있다)에는 필수적인 교육이다(황치성, 2020, 17). 특히 디지털 기기를 통하여 양산되는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확충은 많이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지 모른다. 미디어 리터러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해독(解讀)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미디어를 읽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분별하는 것을 의미한다. 폴 길스터(Paul Gilster, 1997, 153)가 말한 것처럼 미디어에 넘쳐나는 하이퍼텍스트(hypertext)를 컨텍스트(context)로 읽어내는 능력을 함양해야 할 것이다. 하이퍼텍스트는 하이퍼링크라는 고리를 통하여 소위 HTML이라는 형식의 웹으로 지식이 모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각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러나 텍스트를 조각하는 원저자의 의도에 따라 하이퍼텍스트는 그 속에 어떤 의도를 띨 수 있는 양면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디지털 정보를 해독해 나갈 때 가장 필요한 핵심 자질은 신중함(discretion)이며, 검색에 머물지 말고 진정한 의미의 독서를 해야 한다(Gilster, 1997, 159, 165). 가짜 뉴스 여부를 파악하려면 정보의 외피를 벗겨내고, 문서의 신뢰도를 확인해야 하며, 배경 정보를 확인해 보고, 웹 사이트의 주소를 알아내고 비판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하며, 사례를 통하여 다각적으로 정보의 진위를 파악해야 미디어 리터러시 작업을 통하여 정보와 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Gilster, 115-152). 정치적 선호도를 따라 보고 싶은 유튜브 방송만을 검색하고 검증되지 않은 생각을 반복적으로 대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정보의 논리에 빠져 마치 사이비 교주에게 현혹되듯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다. 소크라테스가 활용하던 비판적 사고를 위한 문답법의 세 가지 질문 즉, “1) 내용이 사실인가? 2) 최소한 선의에서 나온 것인가? 3) 중요한 내용인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황치성, 2020, 17-19). 황치성은 미디어 홍수 시대에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중요함을 역설하며, 이를 필수적인 문화역량으로, 미디어가 매개하는 정보를 제대로 읽어내고 자기 주도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위해 필요한 역량으로, 정보의 바다를 안전하게 항해하는 인생역량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와 사회적 포용성 확보 차원의 역량으로, 또한 윤리적 미디어 생산자로서 지녀야 할 역량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는데 매우 타당한 주장이라고 본다(황치성, 2020, 64-71). 눈에 보이는게 다가 아니다. 헤르만 멜빌의 『모비딕(Moby-Dick)』에 나오는 말처럼, "진실한 장소는 결코 지도 위에 있지 않다"(John H. M, 2017, 23에서 재인용). 같은 성향의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보는 행위는 마치 작은 조각으로 쪼개서 그 조각만을 들여다보며 세상을 위한 통찰을 찾으려는 것과 같다. 상호연결성과 상호의존성을 무시하는 환원주의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Miller, 2017, 26, 293). 그러므로 거시적으로는 나라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고, 미시적으로는 학교와 다양한 교육기관(교회 및 종교기관 포함)에서 전체를 보며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관계를 존중하며 분별력과 통전성을 담보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기독교교육에서도 이러한 시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때로는 성경도 너무 편협한 시각으로 부분만을 보고 해석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전적 리터러시 능력을 함양하여 "전체적인 아름다움, 일관성, 유용성"(Miller, 2017, 293)을 가진 인생의 태피스트리(전체그림을 보여주는 멋진 양탄자)를 추구하는 생각을 키워내는 통전적 기독교교육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4. 피조물의 일부로 돌아가는 기독교교육 생태계 복원을 위한 호모 사피엔스의 자리 찾음

모든 교육은 삶의 체계 안에서 발생하며(조은하, 2017, 229), 어떤 사상

도 진공상태에서 형성되지 않는다. 기독교교육도 예외가 없다. 생태학자 최재천의 말처럼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은 현명한 인간이라는 의미이다. 현명하다 함은 무슨 의미인가? 해야 하는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게 현명한 것 아닐까? 지혜롭고 사리에 밝은 사람이 현명한 사람일 것이다. 성경 속 잇사갈 족속의 처신이 그것일 것이다. 사울의 악함을 보고 그를 왕좌에서 축출하기 위해 다윗을 따르는 족속이 군대를 이루어 일어났을 때 유다 자손은 6,800명, 시므온 자손은 7,700명, 레위 자손은 4,600명, 아론/여호야다와 일어난 이들은 3,700명, 스불론 자손은 50,000명, 납달리 자손은 107,000명, 아셀 자손 중에는 40,000명, 르우벤과 갓 자손은 120,000명, 베냐민 자손 중에는 3,000명, 에브라임 자손은 28,000명, 므낫세 반 지파는 18,000명이었는데, 잇사갈 자손은 유독 200명만 일어났다. 그런데 잇사갈 자손은 "마땅히 행할 바를 알고 시세를 아는" 이들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한다(역대상 12장). 현명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Coram Deo) 잇사갈 자손이 가졌던 두 가지 특성 즉 자신이 누구인지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와 시대의 트렌드를 읽고 파악할 줄 아는 지식을 가졌다는 말이다. 호모 사피엔스가 코로나19 재난에 대처하는 지혜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코로나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해 화학적 백신을 만들어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바이러스는 온갖 재주를 부리며 변화할 것이고 그때마다 화학적 백신으로 대처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진정한 인간, 본래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피조물 중의 하나로 살아가는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에 적용되는 전술한 지혜를 한 생태학자는 자신의 말로 이렇게 표현한다. 즉, 적당한 거리두기와 생태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행동 백신과 생태 백신이라는 것이다(최재천, 2020, 32 이하). 최근에 중년 이후 한국인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자연인"이라는 화두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핵심어가 될 것이다. 인간은 지금이라도 본래 자연의 일부답게, 현명한 호모 사피엔스답게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야 할 것이다. 만일 자연의 보복을 당하지 않으려면 자연을 건드

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생태적 전환이며 생태 백신이다”(최재천, 40-42).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일시적인 유익을 따라 함부로 다루거나 정복자 행세를 하면 안 될 것이다. 우리는 피조세계의 일부이며 지구의 관리자, 정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음세대와 부모세대들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당부해야 할 것이다. 특히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는 창세기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이해하고 가르쳐야 할 것이다. 강사문(1997)은 과거 착취, 남용, 침략을 정당화하는데 쓰였던 창세기 1:24-31의 말씀 이른바, 땅에 충만하라(male), 다스리라(radah), 정복하라(kabash)의 진정한 의미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동역자(cooperatio Dei)로서 하나님과 함께 자연을 정원사처럼 보살피고 서로를 보듬으며 파괴보다는 돌보고 관리하고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게 될 때 인간은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의 하나로써 자기의 자리를 찾게 된다.

5. 약한 자의 친구로 살게 하는 우정신앙을 품어 온전성을 추구하는 기독교교육

모든 기독신앙인은 정의(Justice), 평화(Peace), 창조보전(Integrity of Creation)의 세 가지 과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건강하고 조화로운 관계에 대한 소명의식이 결여된 담론과 노력은 차갑고 정떨어지는 정치적 행위로 전락하기 쉽다. 우리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눅 10:36)는 예수님의 질문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눅 10:37)라고 객관적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제가 그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에게 기독신앙을 가진 이들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뇌 중에 크리스틴 폴과 크리스토퍼 휴어츠(Pohl & Heuertz)의 『약한자의 친

구』(Friendship at the Margins)가 해결책 중 하나가 되는 통찰의 실마리를 제공해주었다. 또한 죄많은 인간을 친구로 불러 주신 예수님의 우정을 강조한 김영동의 『우정의 선교』를 통해서도 소중한 통찰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우리가 타인을 우정으로 끌어안을 때 비로소 우리 주변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김영동, 2019). 그의 견해는 폴과 휴어츠의 환대신학과 그 결을 같이 하며 객관적 지식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실제로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겠다는 일종을 실천적 결단 혹은 프락시스를 의미하는 것이다. 지구 전체를 하나의 커다란 공동체로 보든지 아니면 한 나라나 지역을 하나의 큰 공동체로 보든지 간에 "모든 공동체에는 보이지 않거나 무시당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 폴과 휴어츠의 생각이며 "그들(무시당하는 이들)과 주고받는 우정을 통해서도 우리 각자는 온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Pohl & Heuertz, 2012, 20). 예수님이 우리 모든 믿는 이들에게 '네가 어려움 당한 이들의 이웃이 되라'고 당부하신 것처럼, 모든 신앙인에게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 의미있는 관계를 맺는 소명을 주셨다. 그분이 자신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자신을 칭하였고, 자신의 제자들을 종이 아닌 친구로 불러 준 것은 모든 믿는 이들과 "헌신과 목적을 공유한 것"을 의미한다(요 15:7-17). 예수님은 당신을 구세주로 믿는 이들과 우정을 나누며, 주변에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우리도 똑같이 우정을 나눌 것을 요청하였다. 그럴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장벽이 무너지고 치유와 화해의 가능성 또한 열리게 될 것이다(Pohl & Heuertz, 2012, 34-35).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에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존재론적으로 그들과 함께하며 동일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먼저 새겨야 한다는 사실이다. 돕는 것은 함께함의 결과로 나오는 자연스러운 부산물이어야 한다는 말이 된다. 이는 파울로 프레이리(Paulo Freire)가 『페다고지』를 쓰기 전 브라질 헤시페에 있던 이웃들과 함께하며 터득한 통찰과도 일맥상통한다. 그가 결국 집필한 억눌린 자를 위한 교육(Pedagogy of the Oppressed)은 억눌린 자와 함께 하는 교육이었다. 다

른 이들보다 많이 가졌고, 많이 알아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니 먼저 배우고 터득하게 된 것을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베풀고, 나누며, 함께 연대하는 작은 몸짓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미가 된다. 『약한 자의 친구』와 더불어 실천적 삶을 위해 꼭 다루어야 할 책이 크리스틴 폴의 『손대접』(Making Room-recovering Hospitality as a Christian Tradition)이다. 폴은 "궁핍한 나그네를 위해 그리스도의 방을 만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찬 비로 인해 차갑게 몸이 젖은 채로 떨며 허기에 지친 도시 노숙자들에게 공동체가 기숙하는 집의 문을 열고 그들을 환대하였다. 폴은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는 자신이 곧 나그네와 이방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역설하였다(Pohl, 2002, 19). 이렇게 코로나-19 시대에는 따뜻한 환대를 통한 지속적인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가난한 이웃을 우정으로 껴안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교회는 사회를 향하여 지속으로 손을 내밀고 그늘진 응달에 살기에 어떤 사람의 눈에도 띄지 않는 이웃을 향하여 이웃교회와 손을 잡고 초협력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Ⅳ. 나오는 말

기독교교육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그의 피조세계를 사랑하신 그 아가페적 사랑을 실천하는 학문이며 실천이다. 그러므로 모든 기독교교육자는 생명을 위한 교육을 소명으로 여김이 마땅할 것이다. 함께함, 연대, 나눔, 베풂과 같은 개념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본래 창조주께서 만물을 있게 하시고 서로 도우며 함께 존재하게 하시는 뜻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동안 이웃을 적극적으로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하여 우리의 지은 죄를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할 것이다(Bonhoeffer, 1964, 146). "위드(with) 코로나 시대

고등교육의 미래 방향 모색"을 주제로 우리나라의 미래 교육의 갈 길을 모색한 세미나도 이와 결을 같이 하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정신을 주창하였다(정성민 외, 2020). 특히 성경 말씀에 기초한 기독교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은 굶주리고, 헐벗으며, 갈 곳이 없고, 병에 걸렸지만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나그네와 같은 이웃을 내 형제로 친구로 알고 섬기며 돌보는 우정 신학을 가슴에 품고 사고와 실천이 어우러지는 삶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즉문즉답을 강요하는 각박한 현실 속에서 애통해 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함께 하는 삶을 연습함으로 이웃의 아픔을 애통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실천을 도모해야 하며, 이것이 신앙인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며 고통의 짐을 나누어짐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연습하는 기독교교육자의 소임을 조금이나마 더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왕은 그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이들 내 형제 중에 아주 보잘 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일이 바로 내게 한 일이다'라고 말할 것이다(마 25:40, 새번역).

참 고 문 헌

강건택 (2020. 7. 19). 유엔총장 “코로나19는 사회 비추는 엑스레이…불평등 한계도 달.” **연합신문.**

강사문 (1997).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사상,** 467, 179 - 191.

강주은 (2020. 8. 4). 코로나 백신, 선진국 싹쓸이. **연합뉴스.**

고일 편역 (2011). **사회적 약자.** 서울: 에디터.

기독교교육연구원 (2009). **해피투게더.** https://www.ceri.co.kr/

김도일 (2020). 코로나19를 통해 살펴보는 신앙교육의 패러다임. **교육교회,** 5, 10-14.

김성중 (2020). 코로나19 시기 이후의 기독교교육의 방향. **기독교교육논총,** 63, 39-64.

김영동 (2019). **우정의 선교, 열정을 붙잡다.** 서울: 케노시스.

김용섭 (2020). **언컨택트.** 서울: 퍼블리온.

송경재 (2020. 9. 23). 미, 코로나 사망 20만명…한국전 이후 미군 총사망자 추월. **파이낸셜뉴스.**

이지예 (2020. 8. 4) 유엔 “코로나19 역대급 교육위기, 인간 잠재력 허비.” **뉴시스.**

정성민·박대호·이지희 (2020. 8. 13). 위드(With) 코로나 시대 고등교육의 미래 방향 모색. **한국대학신문.**

제씨 (2020. 8. 21). **데일리 이슈 & 트렌드.** blog.naver.com/oddnc/222000044438에서 인출

최재천 외 (2020). **코로나 사피엔스.** 서울: 인플루엔샬.

황치성 (2020). **미디어 리터러시와 비판적 사고.** 서울: 교육과학사.

Apm Research Lab Staff (2020. 11. 12). The color of coronavirus: covid-19 deaths by race and ethnicity in the u.s. https://www.apmresearchlab.org/covid/deaths-by-race에서 인출

Bonhoeffer, D. (2009). **신도의 공동생활.** 문익환 역. 서울: 기독교서회. (원저 1964년

출판)

Coe, George A. (2006). **종교교육사회론.** 김도일 역. 서울: 그루터기하우스. (원저 1917년 출판)

Diamond, J. (2014). **총. 균. 쇠.** 김진준 역. 서울: 문학사상사. (원저 2005년 출판)

Gilster, P. (1999). **디지털 리터러시**. 김정래 역. 서울: 해냄. (원저 1997년 출판)

Miller, J. H. (2017). **전체를 보는 방법: 박테리아의 행동부터 경제현상까지 복잡계를 지배하는 핵심 원리 10가지**. 정형채·최화정 역. 서울: 에이도스. (원저 2016년 출판)

Pohl, C. D. (2002). **손대접**. 정옥배 역. 서울: 복있는 사람. (원저 1999년 출판)

Pohl, C. D. & Christopher I. H. (2012). **약한 자의 친구**. 박세혁 역. 서울: 복있는 사람. (원저 2010년 출판)

Shenker, J. (2020). **코로나 이후의 세계.** 박성헌 역. 서울: 미디어숲. (원저 2020 출판)

Sorman, G. (2020. 8. 20). 보건복지부 세미나. **코로나 이후의 세계: 해외 석학에게 듣는다**. https://www.youtube.com/watch?v=9Laa_LsZSxc.

Volf, M. (2014). **광장에 선 기독교**. 서울: IVP. (원저 2013년 출판)

Wallace-Wells, D. (2020). **2050 거주 불능 지구.** 서울: 추수밭. (원저 2020년 출판)

Wright, T. (2020). **하나님과 팬데믹**. 서울: 비아토르. (원저 2020년 출판)

Abstract

Christian Education with the Socially Disadvantaged in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Doil Kim
Professor, Presbyteria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ursue Christian education with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in the era of the Corona-19 pandemic. Corona-19 is a disaster which is caused, destroyed and exploited by human being. At the time of the indiscriminately spreading global pendemic, we must work together to overcome our selfish self-centeredness and make an attempt for everyone in need. It is a study on how humans can help each other survive in the era of Corona-19 and its post-corona. The problem is that there is too much discrimination between the state, race, and economic capacity, and in the end, the extreme discrimination of capitalism is appeared in society and across the country.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onfirmation rate when Corona-19 infiltrates, but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those with and less in mortality. As a result, today's reality is that people who have a hard time living because they have less usually are far more vulnerable to blocking and defeating virus attacks. Unfortunately, this is the current situation. From the standpoint of a large discourse, attention is paid to climate change and ecological environment, and as a micro discourse, a number of societies who live with tremendous discrimination according to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t is gender, race, disabled, nationality) that exist in almost all countries on the planet. We need attention to the weak. To this end, discourses on vaccine inequality, discourses on the needs of the disabled, discourses on different racial damages, discourses on

polarization and dystopia, and discourses on educational inequality were treated as the reality faced by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in the Corona 19 pandemic. To explore Christian education with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to explore ways of sharing, giving, and solidarity for win-win, discourse on inter-dependence and mutual responsibility of mankind, direct counter-measures for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and critical literacy education. He proposed a discourse on Korea, a discourse on Homo sapiens, which must return to being a part of creation, and finally a theology of friendship with the weak. Christian education based on Bible words must go forward in the era of the Corona 19 pandemic, hungry, naked, nowhere to go, sick, but dying because of being unable to get a remedy. He emphasized the need to establish a caring theology of friendship and pursue a life in which thought and practice harmonize. Thus, the paper proposed the spirit of Christian education not only doing something for the socially weak, but with the socially weak in the daily life.

《 Keywords 》

Covid-19 Pandemic, Socially weak, Inequality, Tnterdependence & responsibility, Solidarity & friendship theology

- 투고접수일 : 2020년 11월 30일
- 심사완료일 : 2020년 12월 26일
- 게재확정일 : 2020년 12월 26일